

<이달의 주제 - 행형>
행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헌법 27조 4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김기웅 순경 다시 피고인석에

대법원 '파기환송' 고법으로 되돌려 "살인에 대한 증거가 없다"

지난 28일 대법원 제3재판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청수장'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3개월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오다 진범이 불잡혀 석방된 김기웅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김씨는 서울고법의 피고인석에, 진범혐의를 받고 있는 서아무개씨는 서울지법의 피고인석에 서는 회극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경찰이나 법원의 잘못으로 옥살이를 시켜놓고 이제와서 절차운운하며 또다시 피고인석에 서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대법원에서 직접 무죄확정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이 국민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임무를 가졌음에도 이와같이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단히 실망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김씨가 지난 해 12월 24일 서울지검에 민주당 강수립 인권위원장과 함께 당시 담당검사인 김

원진레이온 4개 환자단체가 지난 29일 오후 구리시 농협강당에서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원진직업병 피해가족협의회」(회장 김주석) 발족식을 가졌다.

「원직협」은 이날 지난 11월 9일 노동자와 회사간에 합의서의 사후조치증의 하나인 원진노동자의 진료문제 등을 당국이 뚜렷한 해결대안 없이 치료종결을 서두르고 있어, 이에 대해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언론의 인권침해 구제" '바른 언론 시민연합' 창립

언론의 인권침해나 오보 등에 대한 구제에 힘쓸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창립총회가 2월 2일 오후 4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시민연합'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호인단을 구성,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대신해 줄 계획이다.

<인권하루소식> 100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원고 모집

원고지 3매 이내로 목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30일 대전 라이프 관광호텔에서 한국지부 회원, 로빈 퀸 파트리 흥국지부장, 필리핀의 마디 마파 앤네스티 국제집행위원 등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허창수 신부를 지부장에 재선출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교도소장에게 인사안했다고 징벌방에"

양심선언 박석진 일경 지난 19일 영등포교도소

전경해체를 주장하는 양심선언으로 구속기소되어 영등포교도소(소장 안선홍)에 수감중인 박석진씨가 지난 19일 접호 도중 교도소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달간의 금치처분을 받고 있다고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 대책위」(위원장 김종일)가 30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교도소 당국은 박씨에게 포승과 수정을 채운 채 징벌방(먹방)에서 낮에 담요도 없이 지내게 하였으며, 박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27일에야 포승과 수정을 풀고 낮에 모포 1장, 밤에 담요 3장과 매트리스 1장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또 31일 민가협 회원, 박씨의 매형 등이 강봉학 보안과장을 면담했을 때도 정벌의 사유대신에 포승과 수정을 채우는 과정에서 박씨가 반항한 사실만 강조하였다.

◆ 공판안내 ◆

□2월 2일(수)

- 이용권, 집시법, 10시, 서울형사지법 317호, 2회
- 김옥기외3인, 국보법, 11시, 서울형사지법 418호, 속행
- 서울대조교 성희룡사건, 5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2월 4일(금)

- 김삼석외 1인, 국보법, 2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4회
- 황석영, 국보법, 2시, 서울고법 309호, 2회
- 한주석, 특가법(뇌물등), 4시, 서울고법 309호

「인권하루소식」 1월분 총목차(78호-96호)

월일	호	면	기사제목
1/5	78	1	고문피해자의 치료대책 절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29일 국회 청원, 민사소송 제기 문국진씨 신체감정증/민언협, 「93년 10대 애곡·편파 보도사례」 선정, 백운두 선장 생존설,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홍성은씨 기자회견
		2	신년특집/한승현 변호사에게 듣는다/잘못된 과거를 묻어둔 채 '역사의 심판'이나 '미래화'를 역설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의 길이 아니다
1/6	79	1	양심수 군문제 해결 요구, 81일째 농성중,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한 '해결 촉구' 국방부는 겹히 받아들여야/AI, 김형렬씨 양심수 적용, 컴퓨터 통신에 사노맹관련 글 올려 국보법 최초 기소
		2/3	「인권하루소식」 12월분 총목차(58호-77호)
1/7	80	1	44년 옥살이 김선명씨 언제까지…, 민가협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목요집회' 새해에도 계속 이어져/AI도 김선명씨 석방 요구/민정련 광주지부 회원 2명 또 연행, 경찰 연행장소 안 알려/ '사랑방' 이성훈씨 호주 외교훈련과정에 참가
		2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 신설 결의문/「살인미수범」 미군 병사 23일째 수사 못해
1/8	81	1	「말」「한겨레신문」도 국가기밀에 해당, 김삼석·김은주씨 2차 공판, 검찰 "목적수행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국방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라」, 「양군모」 양심수 군문제 해결 위해 10일 총력투쟁
		2	김은주씨에 대한 검찰 신문내용(요약 발췌)
1/11	82	1	"대법원, 하급심 잘못 빨리 시정해야", 김기웅씨 「복직조치」「무죄판결」 등 후속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MBC 'PD수첩' 김기웅순경사건, '살인범으로 몰린 경찰-끝나지 않은 이야기'
		2/3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대책 촉구, 민정련 28일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고 박종철씨 7주기 묘소참배, 9일 모란공원 묘지/김기웅 순경, 고소·고발장
1/12	83	1	출소장기수 김인서·김영태·함세환씨 북한 송환 요구, 10일 KNCC 인권위, 북한 가족들의 편지 통일원에 보내기도/억울한 옥살이 김기웅 순경 대법원에 탄원서, "무죄확실한만큼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
		2/5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1일-10일)
1/13	84	1	연초부터 철거나서 주민들과 충돌, 양천구 신정5지구 재개발지역, 경찰 주민들만 연행조사중/ "외국인 노동자도 기계는 아니다", 13명 경실련서 10일부터 농성중, 산재치료·보상등 요구/「소사장제」반대 단식농성, '경기유리' 노조위원장/성폭력상담소 최영애소장, 제11회 여성동아대상 수상
		2	영국 읍서버신문 국제앰네스티 빼엘 싸네 사무총장 인권선언일 인터뷰, "교묘해진 고문현실" (요약)-한국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외국인 노동자들의 호소문(발췌)
1/14	85	1	과거와의 화해는 고문피해자 치유로부터, 오늘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 「고문방지법」 제정 서둘러야/국보법상의 이적단체 구성죄엔 무죄, 군무이탈엔 3년 선고, 32사단 군사법원 조정희일병 1심선고
		2	단체탐방 8,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고문희생자들, 아직도 고문은 끝나지 않았다
1/15	86	1	'추모'를 넘어 구체적 '결실'로, 14일 '박종철열사' 7주기 추모식·기념강연 열려/sbs '투맨쇼' 15일 성희룡 토론회 마련
		2	특집·고문후유증 사례 1-최영미씨/「내가 먼저 죽으면 영미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의 철규
1/18	87	1	상습적인 남편의 폭력, "가정문이니 상관하지 마라?", 16일 안양에서 폭력남편 살해사건, 아내구 타문제 적극 대처 필요/커피 심부름 거절한 여사원 해고는 "인사권 남용", 서울민사지법 합의 15부/미허가 북한 전화통화 국보법 구속, 15일 경찰청
		2/4	5대 일간지 기사색인(1월 11일-17일)

5대 일간지 및 1·2월호 월간지 색인은 <인권하루소식> 1월분 목차 관계로 내일로 미릅니다.

「인권하루소식」 1월분 총목차(78호-96호)

월일	호	면	기사제목
1/19	88	1	'정치판사' 청산이 법조개혁의 출발, 17일 대한변협 "사법부 개혁의지 실망" 성명서 내/현법재판소 소신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자치단체장 선거연기 사건동 결정 서둘러야
		2	특집 고문후유증 사례 2-김복영씨 '형사들이 집을 도청한다며 필답으로 식구들과 대화'
1/20	89	1	'민족의 큰별' 추모의 발길 끊임없어, 「통일의 선구자 고 늦봄 문익환 목사님 겨례장」 22일 9시 대운동장/"전쟁범죄 시인, 책임자 처벌", 정대협 제103차 수요시위/오늘, '고 황인철 변호사' 추도 미사 및 추도식
		2	살인미수 미군 검찰조사, 재판권 행사할 듯/정치적 살인·실종반대 캠페인 AI한국지부/국제인권 소식, 아·태지역 주요민간단체들 상호협력 체계 발전할 듯/아·태지역 인권단체 국제회의 2월에 열려/대한변협 성명서
1/21	90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절실, ILO 「93 노동통계연감」 노동시간·산재사망률 '국제적' 수준/ 문민적 정부의 여성정책 진단, '여연' 오늘 「여성정책 평가토론회」 개최/「통일의 선구자 고 늦봄 문익환 목사 겨례장」 소식
		2	"우리는 결코 문목사님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민가협 '문익환목사 추모 목요집회'/한준수 전군수 재판 안기부 직원 증인채택, 재판부 기피신청 인정후 첫 공판에서/병역특례문제 공청회, 전해투 28일로 연기/민주당, 문목사 사면목권 및 훈장추서 요구 성명서
1/22	91	1	'김기웅씨 사건' 무죄확정 대법원에 탄원, 오늘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예정, 이기택 민주당 대표등 서명/장애인잡지 <열린지평> 94년 봄호(2호) 발간/앰네스티 한국지부 집행위, 23일 오후 1시/김삼석·김은주 남매, 변호인 반대신문 열려/「고 문익환목사 겨례장」 소식
		2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조전/김삼석 반대신문(일부 내용)
1/25	92	1	열악한 노동조건 비판 잇따라 자살, 서울·부산에서, "완전월급제" "정당한 산재인정" 등 주장/「장길산」 원작료 쟁점, 중인 채택기로, 황석영씨 항소심 첫공판/양심수 군문제 해결 촉구, 기독교 성직자 1,517인
		2/3	5대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1월 18일-24일)
1/26	93	1	'제보'에 춤춘 '과학수사' 재판열려, 27일 수원지법,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몰렸던 김종경씨 손배 소송/통일원 김인서·함세환씨 방북 긍정검토, 북한 '동진호 선원송환 등에 성의 보일 경우'/'한국여성의 전화' 인천에 지부 개원
		2	특집·고문후유증 사례 3-김종경씨/「점장이」의 제보에 놀아난 '과학수사'의 피해자
1/27	94	1	외국인 노동자 18일째 농성중, 경실련 강당, 노동부에 항의 전화결기운동도 펼쳐/「북한인의 정치적 망명」 선전차원이 아닌 인권보호 차원으로, AI 한국지부/양심선언 박석진 일경,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
		2	국제인권소식; 유엔 세계여성대회 소식(1), 95년 9월 4-15일 북경/「인구와 개발문제에 관한 국제 회의」, 이집트 카이로, 9월 5일부터 13일부터 「제5회 민중외교훈련 프로그램」 진행중, 시드니 '뉴 사우즈 웨일즈대학', 1일 10일부터 4주간/충광영열사 어머니 이오순씨 별세
1/28	95	1	택시노련 완전월급제 실시 요구, 26일 대의원대회, 사남금 폐지도/고문피해자 보상대책 청원, 26일 법사위에 회부/김국홍씨등 송환 재촉구, 27일 송환추진본부/사랑방 8차 월례세미나, '장애인의 인권현황' 논의/「진정한 탈영병은 누구인가」, 박석진 항소심 최후진술
		2	「인권운동 사랑방」 8차 월례세미나/장애인 복지실태에 관한 이해(발제 요약)
1/29	96	1	'원진 직업병' 올해 들어서도 8명, 4개 환자단체 29일 통합, 원진직업병 치료대책, 전문병원 설립 설립 중점/일본 검찰에 '군 위안부' 책임자 고소·고발장 별도, 정대협, 2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시민과 변호사〉 창간, 서울변호사회/「정부, 복지약속 지켜야」, 「해고자 복직…공청회」/양심수 사회복귀 보장 촉구, 양군모 대표 병무청장 면담도
		2	단체탐방 9, 노동과 건강연구회/산재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건강한 노동을 지키는 파수꾼!!

<이달의 주제 - 행형>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헌법 27조 4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중점

「여연」 정기총회 여성의 권익 향상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숭실대 사회복지관에서 94년 정기총회를 갖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 등 23개 회원단체 대표와 외부단체로 「부천 여성노동자회」 등이 참가하는 등 모두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

인천 당직변호사제 실시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웅행)은 지난 24일 보성관광호텔에서 94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94년도 회계 예산 등을 승인하고 당직변호사 제도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문의: 032-424-0067)

주요 일간지 및 주·월간 기사색인(2~7면)

<인권하루소식> 100호(2월 4일) 특집 원고 모집

그동안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월 4일로 <인권하루소식>이 지령 100호를 맞이하게 되어, 독자 여러분의 고언을 듣고자 합니다.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원고지 3매 이내, 목요일까지

편집방향, 기사내용, 다른이야 할 주제 등
<인권하루소식>에 바라는 것을 적어 주십시오.

국했고, 이씨는 2월 1일 출국했다(<인권하루소식> 89호, 1월 20일자 참조).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심리 1일 민사지법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공판이 1일 오후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피고 신아무개 씨(중인인 서울대 대학원생) 죄아무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영등포교도소 인권유린 항의 집회

오늘 12시, 교도소 앞

양심선언으로 구속기소된 전경 박석진씨에게 가해진 영등포교도소(소장 안선홍)측의 인권유린 행위에 항의하는 집회가 2일 12시 영등포교도소 앞에서 열린다.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
협의회」 등은 박씨가 “지

난 1월 19일 교도소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금치 30일의 징계조치를 받았다”고 강조하며, 인권단체를 비롯한 많은 단체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인권하루소식>이 유료화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송신비 때문에 부득이 1월부터 구독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구독료는 월 1만원, 2만원, 3만원 중 형편에 따라 납부해 주십시오.

제일은행(낙원지점) : 128-10-131017 서준식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25일-31일)

편집자주: <...> 안의 숫자는 월·일을 나타내며, 다음의 (...) 안의 영문은 신문, 숫자는 면수를 나타냅니다. 주요 일간지의 약어는 'C: 조선, D: 동아, H: 한국, HA: 한겨례, J: 중앙'입니다. 예) <1.25>(C.13) : 1월 25일자 조선일보 13면.

- 인권일반, 법제 -

- <1.25>(C.13) 독자/법관인력난 외면 사법개혁안 실망
- <1.26>(C.23) 특허심판제 개선 관련기관들 이견/사법부-특허청 다툼... “집단이기 벼려야”
- (D.29) 「상고허가제」 도입 강력대응/辯協 李世中회장
- (J.2) 법원 상고심사제 도입 辯協 서 강경대응 태세
- (J.2) 취재일기/감정앞선 상고심사제 논란
- (J.4) 시론/대법원을 대법원답게 만들려면... ‘상고여과’로 시간낭비 없애자(서정우)
- <1.27>(J.5) 시평/법조 집단이기주의 개혁하라(안경환)
- <1.28>(D.8) 특별기고/상고심사제 오해에 답한다(박재윤)

<1.29>(J.23) 이건개씨 석방, 법원, “여러명 앓아” 보석결정

- <1.30>(H.22) 사정구속 인사 줄줄이 풀려, 자수, 지병 등 이유 집유·보석·구속정지, “예상외 낮은 형량 입법취지 퇴색” 지적도
- (HA.1) 김종인·이건개씨 등 잇단 석방, “봐주기 판결” 비난 여론, ‘자수감경’ 변칙적용...사법부 개혁 퇴색
- <1.31>(HA.3) 사설/사법부는 진정 다시 태어나는가
- (C.31) 장덕수 암살 국회프락치 부역자재판 판결문이 사라졌다, 대법원 편찬위 발견, 45·53년 사건에 집중, 미묘한 사안... 「고의 폐기」 의혹도
- <1.30>(HA.15) 국방부, 5·18자료 부실/구속기간 내용등 틀려

<1.30>(H.15) 월간「시민과 변호사」 펴낸 김창국서울변호사회장/“국민비판 담아 새 법률문화 세우겠다”

- <1.31>(C.30) 변호사, 소득신고 전전긍긍, 고소득 전문·자유직 세무조사 강화 여파

- 고문·가혹수사, 공안기구, 피의자, 감옥, 양심수-

- <1.26>(H.4) 화성사건피의자 누명 김종경 損賠訴제기
- (J.31) 독자/TV수사물 구속이유 고지 무시

<1.28>(C.30) 대검, 「가혹수사」 상급자도 문책

- <1.30>(C.27) 피의자 폭행처사 경관 “국가에 1억3천만원 배상해야”, 서울고법

(HA.15) 국가가 피의자에 지급한 1억3천만원 치사경관이 전액 배상해야, 서울고법 구상권 인정

<1.28>(J.23) “3인조강도 꼭 잡아라”, 시민들 불안...경찰은 비상, 특진·포상금 결고 추적 나서

- (J.3) 사설/경찰은 뭘하고 있는가

<1.29>(HA.15) 날뛰는 강도 맹질치안 한계, 일선경찰들 미봉 대응 탈피... 근본 개선 요구

- (HA.3) 폐강도 떨칠 경찰은 설설, 인원·장비 달려 검문·순찰 시늉만 오랜 격무·전보 불안감 사기꺾어

(C.27) 3인조 「흉내강도」 극성, 고교생 등 검거, 경찰 2만5천명 무기한 비상령

(J.23) 파출소직원들 조의금 “수금”, 동료 퇴당하자 관내업소 백여곳서 돈거둬

- <1.30>(D.27) 휴지통(경찰조의금)

(D.5) 기자의 눈/3인조강도와 시민의 전쟁

- (J.22) 강도는 못잡고 수금이라니...

(C.2) 기자수첩/「뒷북치는 경찰」

- (C.3) 사설/「3인조」와 경찰

<1.31>(J.23) 비상근무 경관이 술취해 행패

<1.28>(J.2) 국제범죄 정보센터 설치, 안기부, 마약·테러 대비 공항·항만에 신고소

- <1.29>(C.2) 안기부에 「국제범죄 정보센터」, 북한테러·마약밀수등 첨보 수집·분석

<1.26>(HA.18) 김인서·함세환씨 방북 긍정검토, 통일원

- <1.30>(HA.10) 독자/“미전향 장기수 부당대우 없다”

<1.27>(HA.14) 독자/양심수 징집면제 왜 미루나

- <1.28>(HA.19) 민가협 ‘거리음악제’ 시민 심금 울려, 양심수 석방·보안법 폐지 메아리

<1.29>(HA.13) 동네방네/가슴에 아들 묻은 어머니의 죽음(이오순씨 영결식)

- <1.30>(C.27) 대형사건 단골고발 시민, 이번엔 「돈봉투 사건」 고발

<1.26>(H.29) 음반제작 때 등록거부 정태준씨 불구속기소

- <1.27>(HA.1) ‘공륜심의 거부’ 정태준씨 불구속기소 의미, 등록·심의 분리 법개정 뒤 첫 사례...정씨 “위헌체 청 준비”

<1.31>(H.27) 출소자 사회적응교육/군산교도소 첫실시

<1.29>(HA.15) 美병사와 차선시비 한국인 택시운전사, 미현병, 수갑채워 연행, 동료 1백여명 사과요구 항의농성

- <1.30>(HA.14) 동네방네/주한미군택시 기사의 하소연

-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교육 -

<1.27>(J.2) 자원봉사 경력인정 추진, 정부제2 업무보고, 보험·税制에 사무 노동가치 반영

- <1.28>(HA.2) 차지단체 여성 임용, 동성동본 금흔 폐지, 정부2장관 추진 방침

<1.30>(HA.8) 여성정책 ‘평등’에 정조준, ‘고용평등의 달’ 제정...취업 확대

- <1.28>(C.15) 一事一言/「여직원」과 「직원」

<1.31>(HA.12) 독자/‘의보’ 남편따로 아내따로 부당, 한가족에 보험증 3개

<1.27>(HA.16) “유급생리휴가 폐지 철회를”, 여성계 ‘공동위’ 구성, 모성보호후퇴

- <1.28>(J.28) “생리휴가 폐지는 모성파괴”, 여성계, 노동부 ‘생리휴가무급화안’ 반발

<1.29>(D.16) “무급생리휴가, 현실외면한 처사”, 육인순 여성노동자협 국장, 수당없어져 남성과 실질임금차 더 커져

- <1.31>(H.15) “생리휴가 무급화”, 철회하라”, 여성·노동계 합동회견,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안」 거부 본격 연대나서

<1.28>(D.16) 가정폭력 누적되면 「의외의 비극」 부른다, 평촌 남편살해사건의 교훈/전문가 의견:「폭행남편 격리」 등 대책 마련할 때

<1.30>(HA.10) 더불어 생각하며/‘성희롱’ 판결 여권보장 계기 되길(이영자)
 <1.31>(H.11) 가정폭력 “심각한 단계”, 여성 46% “맞은경 험”…가해자처벌 특별법 제정 등 대책 호소
 <1.31>(D.16) “남의 몸도 내 몸같이 소중”, “장난삼아 함부로 만지면 성추행” 가르쳐야

<1.29>(J.23) 이혼부부 “자식도 쉽다”, 삭막해진 세태, 법원서 서로 떠넘기기 다툼 잦아
 <1.30>(J.15) 독자/‘가정의 해’…벼려지는 아이 많다
 <1.31>(H.13) 24시간 턱아소 시설이 모자란다, 재정, 인력 난에 기존시설 문닫을 판
 (J.11) “맞벌이 가정 노인 돌봐드립니다”, 한국노인복지회 ‘가정봉사원제’ 첫 도입

<1.25>(J.22) 장애인 생활비 더 듣다, 정상인보다 한 달 평균 11만여 원 더 많아, 정립회관서 첫 설문조사
 (H.17) 명든 가슴에서 토해내는 애절한 사랑노래, 뇌성마비 고아 10명 시집냈다
 <1.28>(HA.17) 저소득 정신질환자 방문간호, 노원구 등 7 개구 1천여명 3월부터 실시
 <1.30>(HA.10) 독자/장애인 자동차 구입시 대리 운전자 도 혜택을
 (H.15) 독자/장애인 복지정책 실질도움 안돼
 <1.31>(D.27) 독자/장애아교육 실무경험자 특수교사자격증 수여를
 (H.15) 주부들이 만든 장애인 전문잡지 「열린 지평」, 작년 11월 창간호, 정기구독자 1,000명…

(J.22) 전교조 복직 또 마찰, 교육청 탈락된 99명 중 11명만 허용, 전교조 “선별조치 부당” 재투쟁 조짐
 <1.29>(D.27) 복직제외 전교조교사 재면접, 서울교육청, 65명 내달초에… 상당수 구제될듯
 <1.26>(HA.14) 독자/교원 급여체계 개선 급하다
 <1.29>(J.22) 교사자격증 기간제 신임교사부터 적용/김 교육 밝혀
 <1.30>(H.15) 독자/교사처우 뒷전 자질논란 웬말
 <1.26>(C.21) 유엔전문봉사단원 근무 흥인진씨/3년간 오만서 양재기술 교육 “여성지위향상 경제력키워야”
 <1.29>(D.14) 국가경쟁력 치중교육 「인적설종」 우려, 유네스코 40주년 세미나서 제기

- 노동, 산재, 농민, 도시빈민, 환경 -
 <1.25>(HA.2) 법외노조 공동투쟁 사법처리, 남재희 노동, 관련자 모두 제3자개입 혐의 적용키로
 (D.31) 법외노조 연대투쟁 사법처리 강경대응, 노동부
 (HA.18) 인터뷰: 전노협 위원장 양규현씨, 노동운동 대중화 역점, 임금인상 16% 배수진
 <1.26>(HA.6) 재계 “임금인상 억제” 천명, 30대그룹 기조 실장 모임
 (C.4) 노동기념일 명칭 당정 [근로자의 날]로, 법률공식이 “근로” 등 논거, 일부선 「노동절」 복원 주장, 약 반발…국회서 진통전망
 <1.27>(H.9) 을임금 한자리수 인상, 경총 회장단 회의, 노총과 내달까지 협상마무리
 <1.30>(C.26) 자보 박의광상무 조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서울지검
 (HA.14) 조선노협 오늘 출범, 부산대서 창립대회, 현대

중등 6곳 노조참여
 (HA.10) 독자/5월1일 ‘노동절’로 불러야, 노총조차 동의…정부 명칭논란 의문
 <1.31>(HA.14) 산별노조건설 선도 다짐, 조선노협 창립, 의장 최은석씨… 강령 14개항 채택
 (HA.14) 조선노협 초대의장 최은석씨, “자주적 단결, 발전 도모”, 노동법개정 등 공동대응

(HA.3) 정부-노동계 임금협상전야 ‘조심조심’, 조선노협 ‘공동임무’ 용어 배제…신중한 첫발, 노동부도 “검촉과 설득”… 국민여론에 눈쏠려

(C.29) ‘94임금협상’ 내달부터 본격화, 경총 4월까지 마무리 “작년보다 낮게”, 노총 복지문제-법령개정 등 우선관심 노총, 법외노조들 독자협상 벌일듯

(D.2) 을 임금 한자리수인상 유도, 정부방침, 조선-자동차-반도체업종 중점관리, 수당신설 등 변칙인상 억제

(HA.15) “임금합의 대가 노조간부 정년연장”, 한전 일부 지부위원장 무효화 요구 7일째 농성/회사, ‘거래주장 부인’

<1.25>(HA.19) “노동현실 비참” 택시기사 자살, 23년 근무, 노조간부 활동… 대통령에 탄원서

(J.22) 사납금 못채운 기사 자살, “하루속히 완전 월급 제를” 유서

(C.31) “요금현실화” 탄원도, 사납금 못채워 비판 택시기사 목매 자살

(HA.19) 산재 후유증, 회사쪽 사직 강요에, 50대 노동자 비관자살

(HA.10) ‘20.30대도 ‘파로사’ 속출’, 대부분 스트레스 많은 사무직…구제법 없어 ‘발동동’, ‘파로사 상담센터’를 통해본 실태

<1.26>(J.3) 사설/택시, 이대로 둘 것인가

<1.26>(HA.18) 동네방네/한 택시기사의 절망

<1.26>(D.31) 전직 거절당한 장애근로자 자살관련/한진 중노조 조업거부, 책임자해임 요구

<1.27>(H.29) 동네방네/택시기사 20년 슬픈 마감, “저세상엔 사납금 없겠지”

(HA.3) 사설/죽음으로 항거한 두 노동자의 외침

<1.28>(C.31) 택시기사 또 자살

<1.29>(HA.15) 택시 1백여대 시위/자살 운전자 장례식… 완전월급제 촉구

<1.30>(HA.14) 자살 산재노동자 추모식

<1.25>(HA.3) 사설/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의 전제

<1.28>(C.13) 독자/불법취업 외국인 인간적 대우 마땅

(H.9) 중소기업, ‘외국인 인력’ 신청서 “불티”, 이를만에 1천개업체서 받아가

<1.29>(J.5) 취재일기/‘쌀개방’이 환경파괴 부른다.

<1.30>(HA.7) UR협상 국회비준 농수축협 소극대처/중앙회장단 히동…농민운동단체와 갈등 예상

<1.31>(HA.1) 민자 김범명의원 등 5명 UR 국회비준 반대 서약, 범대위선 불참의원 불신임운동

(J.23) “UR 국회비준 반대” 민자의원 5명 서명, 표결때 파문예상

<1.25>(J.8) 미 그린라운드 「무기화」 한창, 환경관련통상법 발동요건 마련, 賀公 “ISO시리즈” 획득 절실

(J.25) 그린라운드 개도국 「환경장벽」 넘기 비상, 美서

국제기구설립 구체화, “오염책임 전가 경제종속 심화” 중국동 큰반발

<1.26>(D.19) ‘국제 환경표준화’ 기업이 앞장서 대처를 (최주섭)

(HA.10) 책속의 21세기-환경/“지구는 인류손에” 환경보호 채찍, ‘무공해 자원 개발 촉구

<1.30>(J.7) 인터뷰: 깨끗한 국토 물려주기 최열 환경운동聯 사무총장, “낙동강 물 파동은 빙산의 일각”

<1.31>(D.12) 그린 라운드 환경기준 다자간협상, 선진-개도국 기술자 커 갈등

- 전쟁범죄, 통일, 국제, 군축·평화 -

<1.25>(C.21) 일제 장생탄광사고 유족회 김영현 회장, 42년 134명 수몰… 27일 추모

<1.26>(H.29) 정신대배상요구 시위 할머니 3명 할복기도, 어제 일대사관앞

<1.29>(D.31) 정신대 형사처벌 요구 고소장 내당초 日 제출, 한국 정대협

<1.25>(D.2) “동학백돌 논의하자”, 北 천도교위장 전문

<1.26>(HA.18) 전국연합 새 통일운동체 만들기로, 중앙위 결정 채야. 시민단체 폭넓은 참여유도

(D.2) 판문점에 남북출입소 설치, 통일대비 재산특례법 마련, 법무 업무보고

(H.3) 사설/[통일후 재산] 독일을 교훈 삼아

<1.30>(HA.9) 종교는 달라도 ‘통일’ 한마음, 올해 ‘남북 인간띠잇기’에 각 단체 적극참가 움직임, ‘최대인원 1백50만명 동참유도’ 3월1일 준비비 가동

(C.19) KNCC 신년 기자회견, “범종파 ‘인간띠잇기’ 추진, 북한도 응하면 판문점서 연결

(HA.9) 인터뷰: ‘통일’ 모임 발길 잊어진 천도교 오의제 교령, “남북 종교교류 막을 명분없어”, 동학1백돌 기념 공동사업 위해 남북대화 노력

(C.19) 통일원, 남북천도교 접촉 불허

<1.31>(HA.4) 대답: 드 메지에르 전통독총리, 박종화 교수, 남북한 모두 만족하는 통일돼야, 동독인 일방적 흡수 후회…한국 다단계통일 바람직

<1.26>(C.7) “1인당 최고 1억원 지급” 판결/日 대기오염 피해 주민들 소송 10년/요코하마 지방재판소

(D.7) 日 ‘공해소송’ 기업에 배상판결/호흡기질환 ‘주민 인정’… 주민에 4억엔 지불선고, 대기오염 인정…자동차 배기ガ스 피해는 인정안해

<1.26>(J.7) 공해배출 기업 ‘공동배상’ 판결, 호흡기질환 주민들 호소 인정, 12사에 4억6천만엔 지불 명령, 요코하마 재판소

<1.28>(HA.5) 중국 반체제인사들 인권침해 규명촉구, 3백 50명 청원서 서명

<1.29>(C.27) 칼스 케러번은 한국계 대학생, “캄보디아 난민촌 실상을 알리려고 범행”, 濟교민사회 “부끄럽다” “도와줘야” 갈려

(C.6) 인종차별증식 마지막 몸부림/黑黑대립 폭력…하루 10여명 희생/민주화 장애…과도행정위 첫 주제

<1.30>(C.7) 드 최대 금속노조 파업, 임금인상-고용안정 요구, 탄산업체 동조 전업종 확산전망

<1.31>(H.4) 유엔인권위 연례총회, 서방국, 중국 마찰예상, 오늘부터 6주간

<1.25>(HA.12) “농민반란 부추겼다” 비난받던 루이스 주교 멕시코정부-농민군 사이 협상 중재역 맡아

<1.29>(HA.5) 멕시코 선거제 개혁 봉기농민 요구 수용

<1.30>(J.5) 멕시코폭동 38명 석방, 게릴라 5명 사인 조사

<1.31>(C.5) 멕시코반군 준정치권 인정

주·월간지 기사색인

편집자주: 주·월간지는 잡지별로 분류했습니다.
 주간지 응례: <1.3>(2): 1월 3일자 2면

법률신문

<1.3>(2) 사법위 제2차 전제회의, 전국 1백9개 상설간이 법원 설치 결정…

(3) 대한변협, 첫 변호사 등록거부, 도덕성 문제삼아

(7) 자수 시국수배자 전원 불구속 처리

(11) ‘불기초차분취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14)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上>/황희철

(15) 국제법 사례 연구/동해 핵폐기물 투기와 국제법/김찬규

<1.10>(1) 새해 달라지는 법·제도 많다, 국선변호료 인상

(2) 변협, 자체적 사법개혁안 제시, 상고허가제 반대

(3) 국선변호 청구 피고인 범위 대폭 확대, 대법원 관례 예규 개정

(4) 형사재판 질중심리제 마련한다, 서울형사지법

(7) 강도혐의 피고인 국선변호로 무죄 개가, 대전 최현 변호사

(9) 사법 제도개혁에 대한 변협 의견서(요지)

(9) 변협 견의서에 대한 사법위 연구실 의견(요지)

(14)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中>/황희철

<1.13>(1) 현 현재팀, 6년임기 앞으로 8개월, 정치사건에 악한 현재위상 유타 쿤 티

(3) 검사가 히로뽕혐의자 폭행 전치3주

(3) 이지문씨 파면처분은 위법, 서울고법

(10) ‘소송절차정지’ 가져분신청 헌법재판결정례

(14) 사법제도발전의 이론과 방법(上)/사법위 연구실

(15)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下>/황희철

<1.17>(1) 사법위 견의 개혁안 전폭 수용, 윤관 대법원장

(2) 성인범에도 보호관찰 확대 실시, 법무부, 공안사법 등을 제외

(3) 고법부장판사 이하 단일호봉제 실시, 사법위 2분과위

(3) 폭행관련 검사 정계위 회부기록, 대검

(5) 조정전담 재판부 생긴다, 대법원

(8) 윤관 대법원장 연두회견(전문)

(14) 사법제도발전의 이론과 방법(下)/사법위 연구실

<1.20>(1) 변호사소득 협의과세 시대 끝나, 국세청 을부터 실질과세 방침

(3)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도입기록, 사법위 3분과위

(3) 폭행검사 2명 문책성 인사

(12) ‘사형제도의 생명권 침해 헌법소원’ 현재 결정해

(13) 상고허가제의 선형조건/손경한

(14) 부판사제 구상에 대한 管見/정종섭

<1.24>(1) 수사의 적법절차는 민주의 핵, 全 수사기관의 개혁의식 부족이 문제

(1) 부인 상습구타로 이혼당한 남편 아들 면접교섭권 제한, 서울가정법원

(3) 구속영장실질심사제에 검사를 크게 반발
(5) 검사 형기계산 잘못으로 추가 복역 국가가 손해배상해줘야, 대법원

(9) 대법원 판결례, '위증죄로 처벌받은자의 증언을 채용한 경우 그 증인의 적부'

(10) '이지문씨 파면처분취소' 판결문

(14) 상고제도의 개선에 관하여/사법위 자료실

<1.27> (1) 상고제한 부활 찬·반 침예

(1) 신문기사의 본문내용이 올바르다면 제목에 오인 소지있어도 명예훼손 안돼, 서울고법

(2) 형사법정에 폐쇄회로 TV설치한다, 대법원, 법정소란 해결방안

(3) 1년 단위의 계약고용 계속해왔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생신 거절못한다, 대법원

(3) 업무상재해로 수술 대기중 기존질환악화로 사망해도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4) 특허심판제도 개선놓고 공방

(4) 독자투고/사법부의 개혁과 민간변호사단체의 역할/장호순

(14)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및 행정사건의 심급구조/사법위 자료실 제공

(15) 연구논단/미국에서의 한국판결의 승인/김연호

(16) UR협상 타결의 법적의미와 평가(1)/법무부 국제법 무심의관설

<1.31> (1) 개정된 북한 형법·형소법 여전히 인권침해조항 투성이

(2) 법관 근무평정제 도입키로, 사법위 제2분과위

(2) 김기웅 순경사건 원심파기환송, 대법원

(3) 북한방송 직접 청취·보도싸고 논란, 언론노보 제한 법규 없다, 검찰 찬양·고무시 국보법 위반

(5)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타 설치한다

(9) 대법원 판결례, '근로자집단의 동의없는 정부투자기관 퇴직금 규정 개정 무효'

(10) '산재근로자의 증상고정후 계속 치료와 장애급여 지급 여부' 판결문

(10) '남자사원과의 불화동을 이유로 한 여자사원징계는 무효' 판결문

(14) 연구논단/대일민족소송과 국제법의 적용/김명기

(16) UR협상 타결의 법적의미와 평가(2)/법무부 국제법 무심의관설

'여성신문'

<1.7> (3) 노인문제의 현주소<1>-노인문제와 여성문제

(4) '쌀개방보다 더 무서운 게 교육개방'/한양대 총장

(8) 외국판례로 알아보는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끝>, 한국에서는 처벌대상 안돼/배금자

(8) 정신대 할머니들 수요시위 1백회 맞아

(8) 세계의 평등정책<14>-고용상에 성차별 소송에 대한 각종 판례<2>/신용자

(8) 서울대 조교 추행사건 2차공판, 우씨 추행현장 목격한 증언자 나와

(19) 아직도 남아 있는 남아선호 관습들, 민간신앙 재현에서 초음파검사까지

<1.14> (5) KBS, 사무직 첫 직장탁아소 설립, 노조 주관

(5) 노인문제의 현주소<2>-주거형태

(8) 세계의 평등정책<15>-고용상의 성차별 소송에 대한 각종 판례<3>/신용자

<1.21> (5) '아·태지역 전략기획회의' '멕시픽 아일랜드'

지역워샵' 참가·손봉숙 소장
(7) 불붙는 생리휴가 무급화 논쟁/"현실 무시한 처사"- "고용장을 우선" 팽팽히 맞서

<1.28> (5) 남편 성기 절단한 로레나부인 사건, 아내강간 의 심각성 가려지고 선정성 보도 난무

(5) 구타 남편 살해사건 또 발생, 20여년 동안 폭행 일삼은 남편살해, 여성단체 구명활동

(6) 노인문제의 현주소<3>-모두에게 편안한 공동체로서의 3대 가족은 가능한가(상)

(7) 세계의 평등정책<16>-고용상의 성차별 소송에 대한 각종 판례<5>/신용자

「시사저널」

<1.6> ·성탄절 특사: 복권된 '실세'와 간힌 '양심수'

·전향한 장기복역 좌의수; '쌍무기수' 33년만에 풀려나

·주한미군 해무기 완전철거 최초 확인

·소크라테스는 오만의 회생자; 권창은·강정인 교수 '악법도 법이다'는 한국사회 특수한 '정치표어'

<1.13> ·'배병성은 경찰이 만든 범인'; 이협의원 '김춘도 순경사건' 수사자료 공개

·교육, 개방 한파에 '오들오들'; 문화증속·폐교·경제손실 등 걱정 대산

·잃은 '반쪽 역사' 서로 빼자; 북한엔 조선, 남한엔 고려·고구려 유물없어·문화재 교류해야

<1.20> ·'1칸 차' 타고 학원 가기 무섭다; 어린이 수송 차량, 수십만명 사고 노출

·눈치보기 결정에 허공 뜯은 '법관 신분'; 방회선 판사 인사소원, 현법재판소에서 각하

·시론: '국제화' 강조 지나치다/한승현

<1.27> ·직장내 성차별: "커피 심부름 거부할 수 있다". 여사원 이영인씨 부당해고 승소 전말

·"우리에겐 월남전이 아직도 안끝났다"; 고엽제 피해자, 미국 땅에서 '소송전쟁' 준비

·식수와 용수 나누어 관리해야 - 낙동강 오염 종합대책 평가

<2.3> ·'통일의 꽃' 못보고 간 '늦봄' 문의환

·북한, "중국식 개혁·개방 10년전 시작"

·현법재판소 '권위만 우뚝'; 재판소 건물 비판 잇달아

'내일신문'

<1.5> ·특집: 통일시대를 열어간다-<1>국제정세와 남북문제/<2>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3> 일하는 사람들의 통일관/<5>-통일운동의 흐름과 전망/<6> 르뽀, 분단의 상처로 사는 속초 '아바이마을' 사람들

(12) 인터뷰·문의환 목사, '95년에 UN에 한나라로 들어가자'

(13) 두 원로인사의 통일운동 출사표/인터뷰 신도성 전통일원장관, 오익제 철도교 교령

(21) 경상판정 3개월후 사형선고...필름 70% 미보관, 있으나마나한 노동자 정기검진

(21) 부당노동행위로 동부그룹 고소·고발

(26) 내일을 여는 사람들, KBS노조 여성국장 유애리씨, 참기름 장사로 '직장탁아방' 이룬 억척 아나운서

(28) 김춘도순경 사망 관련 배병성씨 무죄판결, 사법부 '제자리찾기' 신호탄인가

(28) 들러리 성탄특사로 생색내기, 서석재씨 구제위한 만기앞둔 양심수 선별석방

(30) 미국 핵 인체실험 대상은 죄수 등

(38)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대통령 사과없인 귀국 못한다", 귀국저지 실체는 안기부

(47) 너른마당/행사보상제도 문제 많다/사법시험 합격자 수 늘려라

<1.19> ·집중기획: 국가경쟁력 만능시대 해부-<1> 문민정권 통치이데올로기/<2> 국가경쟁력 강화의 뒤안길/<3> 대담-국가경쟁력의 올바른 방향/<4>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심층진단: 94 노사관계 전망-<1> 노·사·정 움직임/<2> 노동현장의 목소리

·독점공개: 통일운동 진로 둘러싼 남북원로의 편지교류 /'법민련은 일심동체의 삼발이' 북측 백인준의장/"통일운동의 틀과 방식은 변해" 문의환 목사

(20) 회사 살리기 위해 죽임택했다, 동양정밀 김원술 작업반장

(22) 일터에서: 인간의 얼굴을 한 법이 아쉽다/서영훈

(23) '상고허가제' 부활론 뜨거운 감자; 법원, "업무량 폭주 해결책" 변협, "재판받을 권리침해"

(26) 내일을 여는 사람들: '배달환경' 장원 사무처장

(28) 연속기획: 문민정부와 인권-<1> 박찬운 변호사 인터뷰, 행정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30) 세계는 지금: '고통전당'에 맞선 멕시코 무장봉기

<1.26> ·기획특집: 죽음앞에 선 물-<1> '물정국' 바람부는 정치권/<2> 현지에서 살펴본 민심과 해결방안/<3> 학교식수 공급의 실태

(22) '사회적 합의' 명분, 사실상 임금억제: 제3차 개입 금지조항 부활로 노동정책 후퇴

(23) 사장은 미국이민, 노동자는 부도막기에 안간힘/한대병원 차수련 전위원장 두번째 해고무효소송 다시 승소/외국인 소유 불공정업체에 동탑산업 훈장 수여

(26) 연속기획: 문민정부와 인권-<2> 조작간첩의 실태, 간첩만들기는 "식은 죽 먹기"

(30) 세계는 지금: '농민학살중단' 멕시코 시위

<2.2> ·고 문의환 목사 추모특집-<1> 겨레와 함께한 75년 /<2> 철책면류관 쓰고 통일언덕 오르네

(8) 시사해설: 제임스 을시 미CIA국장 국비방한

(12) 심층진단: 사법개혁 어디로 가나, 인적청산 없는 제도개혁 한계 있다

(13) 법조체계 다시 세워야 한다/정종섭 교수

(18) 문민정부 1년 여성정책 성적표; 고용불안 심화, 복지는 '민망' 수준

(23) 권용목씨 항소심 구시대 악법 적용여부 초점

(26) 인터뷰, '조건부 복직' 수용한 정해숙 전교조 위원장: "노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30) 세계는 지금: 냉전시대의 유산 제3세계에 문헌 1억 개의 지뢰

(33) 반외세 반봉건 외치는 멕시코 농민봉기

「새누리신문」

<1.1> (5) 특별기고: '94 세계 가정의 해, "사회속 가장 작은 민주주의 건설을 위해"/이현숙

(5) '가정의 해' 목적 및 행동강령: 다양한 형태의 가정 발견과 지원모색

(13) 보고싶은 얼굴: 이근안

(13) 순경사망...진상규명호소 6개월, "온몸에 피멍... 몸엔 형태 아니다" 주장

(18) 희년을 앞둔 한국교회 통일운동, 핵문제해결 민족 동질성 회복 앞장서야/김창수

(19) 사진: '1백회 맞은 정대협 수요집회'

<1.15> (3) 사설: "사상범 고문해도 된다" 유감·최형우 내무장관 발언에 부쳐

(3) 금주의 작은 역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

(4) 멕시코 원주민농민군 무장봉기 배경, 오랜 인종차별 5백년 '한' 폭발

(6) 통일은 북과 남, 해외의 혼연일체속에서 가능/문의환·백인준 서신교환

(7) 비전향장기수 김영태노인 송환호소/윤석양씨등 공정판결 촉구/고문근절 및 보상 특별법 제정청원, 문국진모임 국회차원의 대책 요구

(7)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 결실맺다, 성폭력처벌법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

<1.22> (2) 이산가족 만나는 '가정의 해' 돼야/최은영

(6) 강압수사관행 '여전', 검찰·경찰등 수사기관 인권의식 제고 시급

(6) "부당처우 개선" 외국인노동자 농성, 불법체류 평계 억울함 호소 외면

(7) 구타당한 아내 남편 또 살해

<1.29> (2) 미국 해과 인종차별/노정선

(5) 이땅의 사람들-청주도시산업선교회 정진동 목사: 노동자와 함께 걸어온 '외婆' 인생

「언론노보」

<1.8> (1) 남북언론인 교류 중점추진, 연맹을 사업계획

<1.15> (2) 내외통신 북한방송 독점 '안될 말', 안기부 편의 위해 언론사 청취 막아

<1.22> (1) 북한방송 청취보도 가능, 언론노보 관련부처 질의결과 확인, 내외통신 독점공급 안기부 내규일 뿐

(2) 특별기고, 제밥도 못 찾아먹은 언론/박원순

(2) 대북취재는 아직도 '유신시대', 내외통신 '취재독점' 횟포

(2) KBS '직장탁아방' 개설, 노동조합 주도

(3) 168차 보도비평: 낙동강 오염보도, 해법 제시없는 '외곽매리기'

(3) '북한핵' 과장하는 미국언론, 고무줄 잣대로 자국 이익 대변

<1.29> (3) 168차 보도비평: 낮뜨거운 '장여인 치마들추기' 경쟁, 환경문제 밤새 실종 '선정주의' 반성을

(3) 기자수첩, 북한방송 청취와 '보안법위반'

「기자협회보」

<1.1> (2) 민언협 '왜곡·편파보도 10선' 발표

<1.27> (2) 고문목사에 대한 언론의 이중기준, 5년전 '소영옹주'의사가 죽어선 '통일운동의 선구자'로

(2) 발언대: '북한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북핵보도 객관적 입장서 보도하자/정일용

(2) 기자의 눈: 을시 방한과 언론의 '보안시비'

「함께 걸음」
 <1월> 특집: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과 과제/윤점룡
 · '빈곤'과 '장애'의 악순환—민장애우 그 구조와 대안
 · 실효성 있는 전달체계 정비 시급하다—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심포지움에서 지적
 · 해외소식: '국제장애인의 날'을 맞는 대만의 태도

「환경리포트」
 <1·2월호> 특집: 환경과 평화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핵/야누스의 두 얼굴, 핵을 둘러싼 국제동향과 한반도 핵 문제(강문규)/원자력 발전-그 현황과 전망(신재인)/정부의 핵에너지 정책과 재처리시설의 문제점과 대안(이필렬)/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에 맞선 주민 운동(장주선)

「길」
 <1월> 찬밥신세 한경마크, 환경처가 손을 놓을 일이 아니다(이현숙)
 · 심충분석/복직 이후 전교조의 미래
 · 안기부 고문의 가해자를 추적한다/해방 이후 '고문기술자' 열전(김삼웅)
 · 전천후 인기의 비결/변호사수임료와 병원비를 내리려면(신고산)
 · 김현장 선배가 증언하는 광주와 부미방사건(「대학인의 포럼」 기획단)
 · 인터뷰: 아태 노동자연대회의 조직책임자 로버트 라이드/「한국에도 국가위원회가 조직되길 희망합니다」
 · 제일동포-민족과 국적을 다시 생각한다: 엄창준
 <2월> 집중추적/한반도 전쟁위기설 조작인가, 실제 상황인가
 · 주장과 제언/저소득층 주택문제,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한다(김수현)
 · 문화현장탐구-여성문화예술기획/90년대 폐미니즘과 80년대 여성운동의 거리(강영희)

「말」
 <1월> 말이 만난 사람들/「미결재소자의 죄수복을 벗겨라」/「양심수가 없는 나라」에 간 여당 국회의원/벽안의 그린피스 환경전사
 · 리영희칼럼/북한의 이질화만큼 남한의 이질화도 걱정하자
 · UR로 우리가 정말 잊게 될 것들
 · 청와대는 미정보기관으로부터 안전한가(하)/미CIA의 92대선공장과 친CIA 인맥
 · 인물연구/고개 숙인 실세 최형우의 진실
 · 신념좌담/「자주와 통일의 새해를 열자」
 · '산타크루즈' 대학살과 동티모르의 독립투쟁(이성훈)
 ·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알카티와의 인터뷰/「동티모르에 한국민의 지지와 연대를」
 · 여성마당/여교사를 위한 변론(유시춘)
 · 중국가정의 여성해방을 말한다(도춘방)
 · 체제붕괴의 최대 희생자 구동독·소련 여성들(이영님)
 · 사진/일어서는 사람들(장애인)
 · 북한 핵개발설, 물증은 없다(이선태)
 · 김상현 의원 조총련 방문기/「동포가 살고 있었네」
 · 국제화시대의 반미자주화론(김창수)
 · 이해찬 의원이 들춰본 안기부의 비밀장부

·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들이 본 한밤의 인권
 · 두 예비교사의 죽음과 한국 교육대학의 현주소
 · 김남주, 그 의연한 또 하나의 죽음(김영현)
 <2월> 핵문제 타결임박, 남북정상회담의 향방(유영구)
 · 특집: 국제화시대 한국민족주의의 전로/국제화론, 철학의 부재와 논쟁의 결여(박형준)/「애국심 운운하다 나라경제 망친다」; 강경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격론/국제화 시대 민족운동에 제기된 세가지 문제
 · 「현대판 과거」 사법시험제도 개혁론(이상수)
 · 한 법학교수가 체험한 한국의 감옥(조국)
 · 한국의 신세대 판사들(이재열)
 · 출소 쌍무기수 박종린의 증언/내가 겪은 4·19 전후 남과 북의 첨보전

「신동아」

<1월> 특별기획: 「신개국시대」의 세계전략/「국가중심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강경식)/중·일경쟁과 한국의 활로(윤덕민)/개방파고, 능동적 확대전략으로 끈다(유장희)/무엇이 국제화를 가로막는가(장윤영)/「저항영」 민족주의로는 안된다(黑田勝弘)
 · 「통일준비 민족의회」 구성을 제안한다(김상현)
 · 심충취재: 대북정책, 안기부와 통일원의 힘겨루기/남북 대화보다 남남대화 더 어렵다(황의봉)
 · 「남침시나리오」 가상과 현실의 사이(오관치)
 · <긴급특집> 「UR시대」의 경계
 · 심충연구: 미CIA와 국제마약조직의 검은 유착(조성권)
 <2월> <특별기획> 대전환기, 한국의 발전전략/기업경쟁력은 기술·경영의 국제분업에서(최형섭)/또 하나의 파도 「그린라운드」 극복 할 데까지 방안(이상희)
 · 「신외교」 1년, 구태 담습에 그쳤다(박종문)
 · 「한반도위기설」을 보는 세계의 시각(손풍삼)
 · 일본이 보는 한국군: 한국군 핵무장 가능성 일본보다 높다(武貞秀士)
 · 법조계의 새강자 국제변호사들(이수형)
 · 탈냉전 이후 세계를 보는 이론틀 대논쟁/「문명패러다임」 외에 대안은 없다(현정년)

「조선」

<1월> 주한 미대사관 무관 제임스 영의 현장비록/미국 측에서 최초 공개하는 한미 막후비사
 · 심충취재/미 DIA의 충격적 비밀보고서(유용원)
 · 변호사의 감옥 실태보고/그들은 쓰레기가 아니다(박찬운)
 · 비밀상봉 동행 취재기/연변에서 재회한 남북 노부부의 12일간(최장원)
 · 검사·교수 법정 공방증계/마광수 소설 의설 시비
 · 노벨문학상 고디머가 쓴 노벨평화상 만델라론/「자기 중심성의 완전한 결여」가 만든 현실 속의 영웅
 <2월> 북한에 반체제조직 평양성명 제1호(전문)
 · 누가 국가 기밀을 유출시켰나; 한완상·이동복 동시 퇴진의 비밀(김동현)
 · 오픈판사의 고백/김순경 살인누명사건 오픈의 구조
 · 「金 & 張」과 김영무변호사, 동양최대의 법률회사의 국제 감각(강인선)
 · 「세계은행 보고서」-「동아시아의 경제기적」 발전배경과 내용 요약(조윤제)
 · 러시아 지리노프스키의 등장/핵무기를 가진 파시스트 국가로의 길(김명호)

<이달의 주제 - 행정>
 미결수용자에게는 청결하고 적당한 사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 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88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엄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회원단체인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의 주관으로 2일 12시 20여명의 정신대 할머니, 일본의 「도라지회」 대표 4명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정신대 만행의 해결이 국제화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언론」 인권침해 적극대처 2일 「바른언론」 창립대회

언론의 속보주의와 특종주의에 따른 인권경시와 무책임한 보도관행의 개선과 언론피해자 구조활동 등을 펼칠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대표 정의숙 등) 창립대회가 2일 오후 4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이세중 대한변협 회장, 권영길 인노련 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양심수를 위한 거리음악제 임수경·김광석씨등 출연 22차 목요집회, 3일 2시

민가협은 22차 「양심수 석방 및 국보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3일 2시 탑골공원앞에서 임수경씨 사회로 「양심수를 위한 거리음악제」 형식으로 갖기로 하였다.

<인권하루소식>이 유료화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송신비때문에 부득이 1월부터 구독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구독료는 월 1만원, 2만원, 3만 원 중 형편에 따라 납부해 주십시오.

제일은행(낙원지점) : 128-10-131017 서준식

①인터뷰/필리핀 인권운동연합 사무국장 예블린 발레세라노①

편집자주: 호주에서 진행중인 민중외교훈련프로그램(DTP)에 참석중인 이성훈씨가 <인권하루소식>을 위해 강사중에 한 명인 필리핀의 예블린 발레세라노와 지난 1월 27일 DTP 사무실에서 인터뷰한 것입니다.

◇강의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인권하루소식>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필리핀 인권운동연합(PHARA)」이 어떻게 창립되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알다시피 PHARA는 86년 8월 즉 마르코스 독재정권을 민중의 힘(People Power)

으로 쓰러뜨린 지 6개월 후에 창립되었습니다. 당시 변화된 정세하에서 인권운동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느슨했던 「인권운동협의회(PCHR: Conferential body of the Philippine Conference on Human Rights)」보다 강력한 조직의 필요성을 많은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86년 8월 100여개 인권단체가 참석한 전국대회에서 정식으로 결성되었습니다. 많은 인권단체 가운데 「구속자대책운동(TFDP: Task Force Detainees-Philippines)」, 「정의평화를 위한 법교파 운동(EMJP: Ecumenical Movement for Justice & Peace)」, 「필리핀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NCC: Human Rights Committee of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개신교 변호인 연맹(Protestant Lawyers' League)」 등의 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근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았는데 하나씩 극복하여 이제는 필리핀 인권운동을 대표하는 연합체로 튼튼하게 자리잡았습니다.

◇상근자는 몇명이나 되는지요? 그리고 복잡하겠지만 조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상근자는 12명입니다. 그중 한명을 변호사이고 나머지는 인권대중활동경험을 쌓은 인권활동가입니다. 지역단위에 약 40개, 수도 마닐라의 전국단위 조직 약 30개 그리고 연구소 및 개인회원 등 다양한 분야를 회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PHARA는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전국총회에서 향후 2년간의 사업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주요 임원을 선출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실행은 1년에 한번 열리는 지도자위원회(Council of Leaders)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 지도자위원회 아래에 전국조정위원회(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가 있고, 다시 그 산하에 사무국을 비롯하여 캠페인위원회, 법률구조위원회, 연구조사위원회, 로비위원회, 국제연대위원회, 그리고 최근에는 인권교육 및 정보위원회가 신설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PHARA는 유엔의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국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설명해주세요. -PHARA의 주요 역할은 많은 인권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전국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단체의 수는 많았지만 전국단위의 인권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영향력이 부족했죠. 그리고 많은 인권단체들이 유엔 등 국제연대와 외교의 장을 필리핀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규모의 영세성과 재원의 부족으로 제대로 실천을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국단위 연합조직인 PHARA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연대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립 직후 2명을 프랑스 스트拉斯부르그의 국제인권법 강좌에 파견하였으며, 그

리고 1명은 미국에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국제차원의 회의나 연수회에 지속적으로 회원을 파견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그 결과 이들이 현재 국제연대사업에 주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PHARA는 「국제인권연합(FIDH: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의 회원이기도 하며, 모든 활동은 국제인권법과 인권헌장에 등 국제인권장전에 기반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방콕과 비엔나 인권대회를 통해서 한국 인권운동가를 많이 만나셨는데 한국 인권운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을 한번도 방문하지 못해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을 체험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비엔나에서 만난 한국 인권운동가의 활약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비록 모두가 영어를 잘하지 못해 많은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해 아쉬웠지만 한국 인권운동가들이 보여준 진지한 자세와 패기 그리고 단결된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권운동가의 부러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비엔나에서 문화운동그룹(풍물팀)의 공연은 매우 홀륭했고, 마지막 날 아시아 연대의 밤 진행이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시아 인권운동의 현황을 볼 때 그나마 전국단위에서 내용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인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 두나라 정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가 파트너가 되어 「비엔나 이후(Post Vienna)」 사업을 아시아에서 주도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DTP 강의를 마치는대로 「아시아지역 인권운동협의모임」에 참석하려 방콕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모임에 대해 특별한 기대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솔직히 말해 특별한 기대없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알아보기 위해 참관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설상하게도 이번 회의가 개최되는데 사전협의를 받지 못해 어떤 배경으로 회의가 소집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이 모아져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운동이 진일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인권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인상을 받는데 어떻게 인권교육을 발전시켜 왔습니까?

-86년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지자 많은 사람들이 「민주정부(?)」가 세워졌는데 인권운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는 체계적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느꼈습니다. 앞에서 해외의 인권강좌와 연수에 사람을 파견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87년 먼저 각 인권단체에서 선발된 활동가 50명을 대상으로 약 1달간 집중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더욱 발전되어 현재에는 기초과정 3주, 본과정 3주 그리고 인권교육담당자 과정 3주의 3단계 교육과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단위에서 2회를 실시하였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너무도 많은 사람이 자신이 정당하게 주장할 권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고 있으며 권리라는 정부 당국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그동안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인권교육 정책이 수립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인권교육을 정규교육 커리큘럼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인권운동을 조직하는 것 이전에 인권교육이 선행해야 한다는 것을 결실히 깨달았습니다. 즉 철저한 인권교육 없이 튼튼한 인권조직이 설 수가 없습니다.

◇인권교육 이외에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1990년 총회에서 「필리핀 인권정보센터(Philippine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아시아 인권연구소(Asi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필리핀 인권협동재단(Philippine Human Rights Cooperative Foundation)」 등의 설립을 결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차적으로 91년에 지도위원회 부설로 「필리핀 인권정보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필리핀 민족의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 민족주권과 모든 분야에서의 인권신장을 목표로 하여 92년부터 94년까지의 중점 사업방향은 다음의 4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전국적으로 필리핀의 인권 및 민중권 선언을 위해 노력하고,

2) 정부의 무력전쟁 정책을 종식시키고, 강화되는 정치적 탄압과 군사화를 막기 위한 종합 캠페인을 전개하며,

3) 인권존중에 바탕한 평화와 내부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문제의 해결을 위한 필리핀 민중의 노력에 동참하고,

4) 전망, 사업계획 및 조직의 관점에서 인권운동연합을 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중 「필리핀 인권 및 민중권 선언(Declaration of Human and People's Rights)」은 작년 말에 인권단체 전반의 의견을 모아 정식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이 많아 재정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까?

-연합체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원칙

적으로 각 회원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각 회원단체가 해외 재정단체에서 원조를 받을 때 아예 연대활동비를 예산항목에 넣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공헌하기가 힘든 단체는 인력을 파견합니다. 제가 속했던 「구속자대책운동」이 그러한 경우이지요. 사무국 예산은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해외 원조단체에 재정신청을 합니다.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럭저럭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86년 이후 정부와도 함께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인권위원회(PHRC: Presidential Human Rights Committee)에 저희 PHARA는 「무료법률지원단(FLAG: Free Legal Assistance Group)」과 함께 필리핀 인권운동 전체를 대표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조직적으로 추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유네스코로부터 1989년에상을 받았고, 또한 PHARA가 주관하는 인권교육 강좌는 문교부에서 학점으로 인정해줄 정도로 상당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대학에 인권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운동 특히 PHARA에 참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현재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어떤 소감을 지니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다른 활동가와 마찬가지로 저도 학생운동 출신입니다. 70년대 초반 대학에서 사회사업을 공부했습니다. 졸업후 미국유학의 기회가 주어져 한때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툰도(Tondo)지역의 빈민촌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농촌에서 일하다가 남편이 82년에 다시 구속된 것을 계기로 구속자 가족과 친척을 조직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86년부터 92년까지 「구속자대책운동」에서 일했고, 작년부터 PAHRA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단위의 기구로서 일이 많고 국제회의에도 자주 참석해야 하므로 정신없이 바쁘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끝〉

◇국제인권단신◇

국제앰네스티, 미국내 사형집행 중단 요구

여러 나라에서 사형폐지운동이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올해 1월 국제앰네스티는 미 대통령 클린턴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내 사형집행을 중단하도록 촉구하였다. 미국은 1977년 사형제를 부활한 뒤 지금까지 226명을 처형했으며, 작년 한해에는 38명을 사형시켰다. 작년 사형집행된 사람중 4명은 청소년이었으며 상당수가 정신이상자였다.

<이달의 주제 - 행형>
수갑, 연쇄, 차고 및 구속복 등
계구는 결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33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숨가쁘게 달려온 <인권하루소식> 오늘 100호

“재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교도소측이 재소자에 대해 치료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국가는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갖가지 이유를 불여 진료를 거부해오면 교도소나 구치소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인권보장을 위해 한걸음 나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42단독(박동영 판사)은 3일 구치소 수감 중 동료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눈을 다친 뒤 치료소홀로 한쪽 눈이 실명된 이국현(33세)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이씨에게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동료재소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해 눈을 다친 뒤 담당교도관들에게 여러 차례 통증과 실명증세를 호소하고 외부진료기관의 진찰을 요구했는

데도 구치소측이 이를 무시하고 치료를 소홀히 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2년 10월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동료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발길질을 당해 왼쪽눈을 다쳤으나, 소측은 ‘폐병을 부린다’며 진료를 거부했다.

한편 서울지법의 이번 판결과 더불어서 앞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진 손해배상은 사후에 담당 공무원에게 부담시키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인권보장 의지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박석진 일경 징벌 풀려
교도소장, 공개사과도**

지난달 20일부터 1달간의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방에

갇혀 았던 박석진 일경에 대한 징계가 풀리게 되었다.

영등포교도소 앞에서 2일 낮부터 3일 오후까지 농성을 벌이던 민가협 회원,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회원 등을 대표하여, 지선스님, 이문옥 전감사관등 5명이 송신홍 교도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소장은 ‘박 일경에 대한 징계 해제’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수갑을 채운 것, 다리에 포승을 묶은 것, 민가협 회원들에게 서무과 직원이 폭언을 한 것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3일 오후 5시 면담을 하기 전까지 교도소측은 “시위를 해산하지 않으면 징벌조치를 풀지 않겠다. 시위를 하여 징벌을 풀면 선례를 남긴다”며 자신들의 부당한 처벌을 애곡시키려 하였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2일 “박 일경에 대한 금치와 48시간동안 포승줄 또는 족쇄를 채운 것은 한국이 비준한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의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며 “박 일경의 금치해제와 앞으로는 재소자의 처우에

대한 국제기준을 지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 무급생리휴가 추진
여성계, 거센 반발**

정부가 3일 여성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여성정책심의회’에서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산전산후 휴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여성근로복지계획’을 확정지었다.

이날 정부에서 확정한 ‘여성근로복지계획’은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여성근로자 본인의 동의하에 어떤 직종에서든지 일할 수 있게 하고, *남녀 성분리적 요소를 없애는 교파서 개편, *산전산후 휴가를 60일에서 12주(84일)로 확대하고, *시간제 근로, 재택근무 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등은 ‘근로복지계획’이 ‘법과 현실의 괴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생리휴가 무급화 철회’를 요구했었다.

<인권하루소식>이 유료화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송신비때문에 부득이 1월부터 구독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구독료는 월 1만원, 2만원, 3만원 중 형편에 따라 납부해 주십시오.

제일은행(낙원지점) : 128-10-131017 서준식

지령 100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인권 전문소식지의 면모를” 최은아(‘천주교 인권위원회’, 간사)

<인권하루소식> 100호 맞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편집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깊은 애정을 보냅니다. 인권하루소식의 열렬한 독자로 틈틈히 메모해두었던 이런저런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빠른 정보와 알찬 소식을 필요’
제도언론은 선정성과 상업성으로 인하여 정보를 독식하는데 비하여 <인권하루소식>은 빠르고 신선하며 유용한 인권정보로 시민의 알 권리 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인권전문 소식지로서 자기 위상을 갖고 자기 매체를 개발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색인을 주제별로 정리”

지금은 신문사와 주간지별로 인권 소식을 정리하지만 이런 방식은 유용성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1차 조사 이후에 필요한 정보의 가공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보다 유용한 가치로 만드는 단계인데, 예를 들어 노동·양심수·여성·어린이·노인·복지·법·행정 등의 주제어로 분류 할 수 있겠습니다.

“월 캠페인 사업 구체적 실천까지”

1월의 인권 캠페인은 고문이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고문피해 사례를 작성하여 양심수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나 형사사건에서도 비일비재하는 검찰 및 안기부의 악습을 다루었습니다. 이에 폭로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고문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대안과 여러 인권 단체들의 다양하고 상징적인 시위 등을 조작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을 전개합시다.

고통받고 소외된 모든 이들의 따뜻한 사랑방이 되길...

전홍윤(월간『함께걸음』 편집장)

지난해 여름 처음 ‘인권운동 사랑방’이란 이름을 접했을 때 내가 받은 느낌은 국제화, 세계화를 추구한다는 우리 사회의 눈부신 발전, 세련된 감각(?)과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다는 시골스러움과 아련한 향수였다. 그후 매일매일 출근과 더불어 가장 먼저 만나는 ‘필독서’로 자리잡게 된 팩스 소식지는 당시 장애우교육권 홍보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더욱이 탑풀공원 집회에서부터 국회 공청회까지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처음 접하는 장애우교육권 싸움을 이해하기 위해 애를 쓰는 심보선씨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 받았던 느낌과는 다르게 ‘뒷심’을 느낄 수 있었다.

추운 겨울밤 군불 뜨시게 지편사

랑방에 모여 앉아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던 우리네 옛 모습처럼 ‘인권운동 사랑방’이 ‘문민’의 그늘에서 차

고 어두운 세월을 보내는 장애우,

노인, 여성,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활짝 웃을 수 있는 참 사랑방으로 자라기를 바라며, 따뜻한 마음 한자락 접어보낸다.

시대의 파수꾼으로 자리잡기를 김동한(‘법과인권연구소’, 소장)

<인권하루소식>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준비호부터 한 호도 빠짐없이 쟁겨보면서 받은 느낌은 아직도 우리에겐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문민적 정부에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인권운동은 군부독재의 텃줄속에 문민독재가 꿈틀대는 것을 직시하도록 새롭게 인식시키는 일입니다. 국가보안법, 양심수, 아동학대, 부녀자 성폭행,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환경인권침해 등등이 5·6공 때나 지금이나 별차이 없이 버젓이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인권운동이 점점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은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하루소식>은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을 타파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도록 모든 민중·민주운동가들을 채찍질하는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제몫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의 인권 상황에도 관심을 황차은(‘이철규열사 추모사업회’, 간사)

지역(광주)에서 활동하는 처지라 놀 자료나 정보가 아쉬웠는데 그동안

<인권하루소식>을 받아보며,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바람이 있다면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현재 실시하는 인권세미나 교육내용을 자료로 받아보았으면 합니다. 또 여력이 있다면 지역순회 인권강좌를 개최해 봄이 어떤지요.

지령 100호를 축하합니다.
오완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앞으로도 한국에서 인권의식 고양과 인권보호를 위해 신속하고도 정확한 살아있는 소식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제적 인권침해 사례를 다룰 수 있게 되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나도 <인권하루소식>의 주인”
윤미향(‘정신대대책협의회’, 간사)

언제부터였던가. 나는 하루 일과를 <인권하루소식>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일간지들도 방송들도 인기있는 기사를 다루느라 허울 좋고 말만 앞세운 ‘문민정부’의 정책 아래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고통에 무관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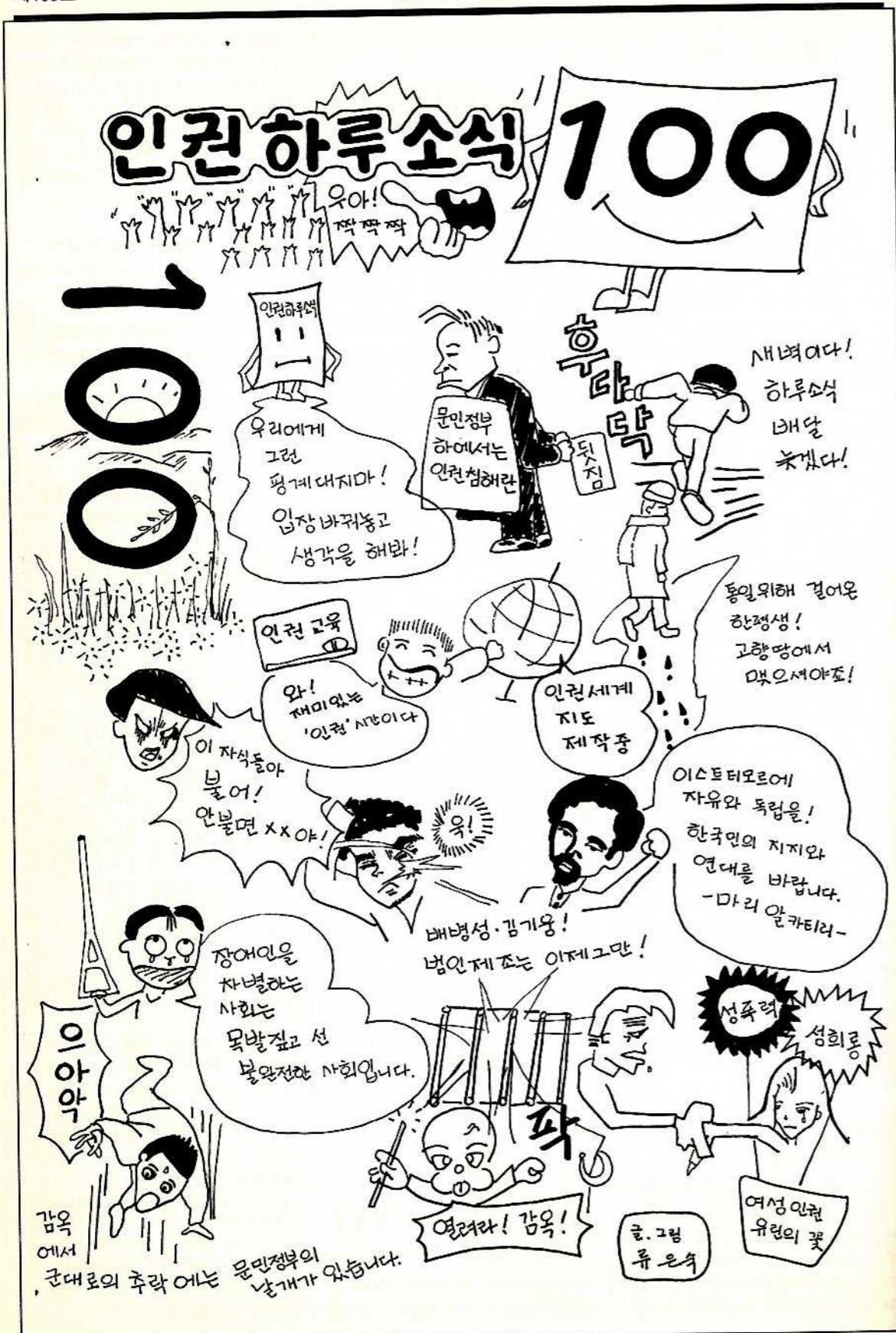
반면 <인권하루소식>은 그 신음소리를 담아 인권을 유린당한 자들의 아픔을 대변해왔다고 생각한다. 누구보다도 내게는 더욱 그랬다.

남편이 안기부에 연행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을 때 어느 언론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인권하루소식>은 나의 호소를 받아주었다. 남편과 나를 대신해 우리의 고통을 표현해주고, 국내외에 알려주었다.

그때 이후 <인권하루소식>은 나의 일과의 첫 시작이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고 생각한다.

바라는 이러한 인권소식이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와 농민에 이르기까지 쉽게 접할 수 있고, 읽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소식지다운 면모를 더욱 더 갖춰나갈 수 있기를 빌어본다.

이것은 독자와 편집자가 따로없이 <인권하루소식>을 받아보는 독자들도 기자가 되어, <인권하루소식>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나도 주인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해본다.



인권하루소식

색 인

(준비 1호 - 제100호)